

# 어린이 자석 삼킴사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어린이가 사용하는 자석완구 중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되어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자석 삼킴사고는 어린이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자석완구 등 5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 완구 및 어린이장신구 36개 제품(자석완구 29개, 자석귀걸이 7개), 기타 자석 22개 제품(소형강력자석세트 11개, 자석메모홀더 11개)

글\_양지숙 대리(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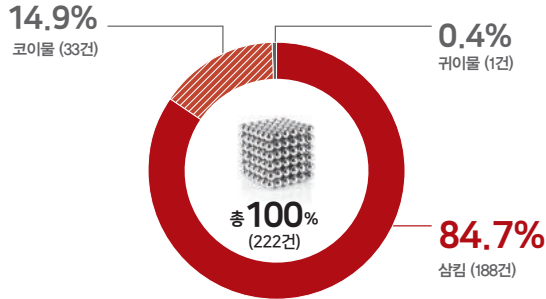
## 자석 삼킴사고, 84.7%로 가장 많아

자석완구는 자석 또는 자석 부품을 포함하는 자석블록·자석칠판·자석뉘시·자석다트 등의 장난감을 말한다. 그러나 이 자석완구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자석 삼킴 사고가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 3개월간(2013년~2018년 3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자석 관련 어린이 사고는 총 222건. 이 중 삼킴사고가 188건(84.7%)으로 가장 많았고, 자석을 코와 귀에 넣어 발생한 이물사고가 뒤를 이었다. 또한,

5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안전사고는 181건으로 전체 81.5%를 차지했다.

자석 삼킴사고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데 그 위험성이 크다. 자력이 센 자석을 2개 이상 삼키거나 철·니켈 등의 금속과 자석을 함께 삼키게 되면, 장기 내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 장 폐색·천공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한 2차 감염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어, 삼킴사고에 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위해유형별 현황



자속지수 안전기준치 초과에 제품 표시 사항도 누락

한국소비자원의 안전성 시험 결과, 조사대상 58개 중 37개 (63.8%)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해 완구에서 분리되는 자석 또는 자석부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없는 크기로 규제하고, 자속지수(자석의 세기)는 50kG<sup>2</sup>mm<sup>2</sup>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대상 36개(자석완구 및 어린이장신구) 중 25개 제품의 자석 또는 자석부품이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였고, 이 중 15개 제품은 자속지수가 완구 안전기준(50kG<sup>2</sup>mm<sup>2</sup> 미만)을 최소 3배(176kG<sup>2</sup>mm<sup>2</sup>)에서 최대 45배(2,298kG<sup>2</sup>mm<sup>2</sup>)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시 실태 조사에서는 자석 완구 29개 중 21개 (72.4%) 제품이 표시사항을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 부품 경고표시 18개(62.1%), 안전확인 표시(KC 마크)\* 17개(58.6%), 사용 연령·연령 구분 표시 각각 16개(55.2%)로 안전한 사용을 위한 중요 표시 사항을 누락한 제품이 많아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확인 기준으로 관리되는 대상 제품에 붙이는 표시로 KC 마크, 신고필증 번호를 기재

자석완구 등 안전성시험 결과

구분	조사대상 제품수	작은부품 실린더에 잡히는 제품수	자속지수 시험(kG <sup>2</sup> mm <sup>2</sup> )**		
			안전 기준	기준초과 제품자속지수 측정 범위	기준초과 제품수
완구 및 어린이 장신구	36	25	50 미만	176~2,298	15
기타 자석제품 (소형강력 자석세트 및 자석 메모홀더)	22	22		7~1,277	22

\*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원통형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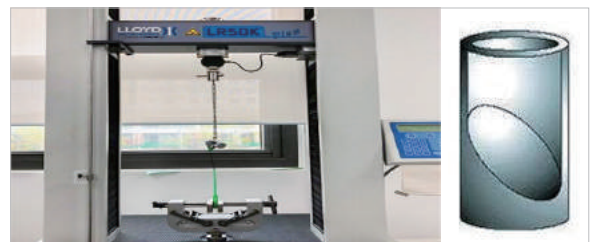
\*\* 자속지수시험은 '작은부품 실린더에 잡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

해외 자석제품 리콜 시행, 우리나라는 규제 없이 유통

유럽연합·북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자력이 강한 '소형강력자석세트\*'와 어린이가 완구로 오인할 수 있는 '자석 메모홀더' 등을 사용 연령에 관계없이 완구 안전기준을 적용해 리콜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일부 '소형강력자석세트'에 "아이들의 장난감", "아이들 집중력 향상" 등의 문구를 넣어 완구로 광고하고 있으며, 현재 아무런 규제 없이 유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자석완구 등의 관리·감독 강화와 미인증 제품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자력이 매우 강한 3mm~5mm 크기의 작은 자석구슬들로 구성돼 있으며, '네오큐브' 등의 명칭으로 판매됨.



\* 작은 부품 실린더는 만 36개월 어린이의 목구멍을 모형화한 기구다. 지름 31.7mm, 좌면 25.4mm, 우면 57.1mm의 원통형 기구를 이용해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를 측정할 때 사용한다.